

독립운동자금 조달의 주역들

-사례를 중심으로-

Independence CEO

이 동 언*

Dong-eon Lee

국문요약

대일항쟁기 한민족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회복을 위해 꺾박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 자금 조달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또한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 전 재산을 기꺼이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대담하고 고귀한 희생은 조국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 독립운동 자금이나 군자금을 모집하는 일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문서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실정이다. 독립운동 공훈록을 보면 군자금 모집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다. 일제측 보고서외에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나 증언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운동 자금 조달의 주역들은 독립운동의 CEO였다. 남아있는 독립운동 자금이나 군자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http://doi.org/10.56475/ygsr.2023.28.1.183>

논문투고일 : 2023.05.15. 논문심사일 : 2023.05.16. 게재확정일 : 2023.06.01.

*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연구소장(E-mail: delee5641@hanmail.net)

Research Director, Sunin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주제어: 독립운동자금, 군자금, 국채보상의연금, 안희제, 이회영, 이상룡,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공채, 정정화, 윤현진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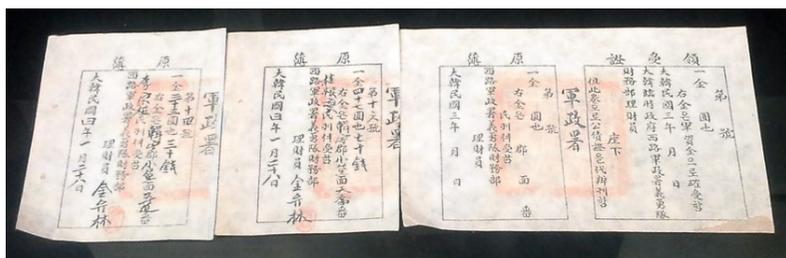
I. 머리말	V. 승려들의 독립운동자금 지원
II. 국채보상운동과 의연금	VI. 맺음말
III. 독립군과 군자금	
IV. 독립운동자금과 대한민국임시정부	

I. 머리말

한민족은 국권 회복을 위해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자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하였다. 경제적인 여력없이는 독립운동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위한 숨은 주역들이 있었다. 독립운동자금과 군자금이라는 용어는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군자금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의 운영과 군사 행동에 필요한 모든 자금’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독립군의 자금을 말한다. 독립운동자금은 ‘독립운동을 위한 모든 자금’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측 보고서를 보면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거나 발각된 개인이나 단체가 많이 있다. 독립운동자금이나 군자금을 모집하는 일은 비밀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문서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 중에서 군자금의 경우 1921년 1월 서로군정서에서 군자금을 낸 이종식에게 발행한 영수증이 있다. 그

외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록이나 증언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1921년 1월 서로군정서에서 이종식에게 발행한 군자금 영수증
(독립기념관 소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 독립운동자금을 상하이로 보내왔다. 미주를 비롯하여 중국·러시아 등지의 한인동포들이 푼푼이 모은 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냈다. 특히 하와이와 멕시코 등지로 이주한 한인 노동자들은 사탕수수밭에서 힘들게 번 눈물겨운 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냈다.

독립운동자금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채보상운동과 의연금.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위해 백산상회를 설립한 안희제(安熙濟), 6천석 재산을 쾌척한 이회영(李會榮)일가, 전답과 99칸 임청각을 처분한 임정 국무령 이상룡(李相龍), 6번이나 국경을 넘은 정정화(鄭靖和), 대한민국임시정부 민당요원(民黨要員)으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신현상(申鉉商), 러시아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崔在亨),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차장 윤현진(尹顯振), 의열단 창단 자금을 조달한 이종암(李鍾岩)의사, 항일승려 백초월(白初月) 그 외 광복회와 군자금 모집, 의열단과 군자금 모집, 철혈광복단의 간도 15만 원 사건, 보합단의

군자금 모집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¹⁾

II. 국채보상운동과 의연금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민족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예가 많이 있다.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은 3·1운동이다. 그러나 3·1운동 못지않게 의미있는 역사가 있다. 1907년 1월 29일 대구에서 발의되어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이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1907년 일본의 국채 1,3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의 강토는 필경 일본의 영유가 되고 말 것이라는 국운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은 세입총액 1,318만 9,336만 원, 세출총액은 1,395만 523원으로 당시 국채 1,300만 원은 대한제국 정부 예산에 달하는 금액으로 1,300만 원의 국채를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전 국민이 힘을 합하여 일본에 진 빚 1,300만 원을 갚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지키자는 국권수호운동이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발의되었다.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 문회(文會) 특별회에서 회원 김광제(金光濟)·서상돈(徐相敦) 등이 발의하여 시작되었다. 먼저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가 발기 연설을

1) 독립운동자금과 군자금에 대해서는 최근의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이동연(2021), 『독립지사들의 동력이 되어준 독립운동자금』, 『월간 독립기념관』, 제396호; 김도형·김주용·김형목·이동연(2022), 『Special Theme 독립운동의 생명줄, 군자금 항일투쟁의 기틀을 세우다』, 『독립운동자금의 역할과 의의』, 『군자금 확보와 사용』, 『군자금 관련 주요사건』, 『독립군을 키운 숨은 주역』, 『월간 순국』, 제373호.

하였다. 서상돈의 발의에 참석한 대구광문사 문회 특별회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찬동하고 김광제가 발기 연설을 마친 후 당장 실시할 것을 주창하고 자신의 연축과 연갑을 버리고 3개월치 담배값 60전과 의연금으로 10원을 내자 모두들 동참하여 2천여 원이 모금되었다. 국채보상발기문과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보면 전 국민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어 일본의 국채 1,300만 원을 갚자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담배는 당시 한국에 이주해온 일본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대표적인 상품 가운데 하나였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만세보』·『제국신문』 등 언론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당시 언론에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아울러 격려문도 실렸다. 당시 신문을 보면 국채보상 의연금 명단이 신문지면을 메우고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신분·계급·성별·직업·종교·사상 등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획기적인 점은 여성들의 참여가 많았고 여성들은 반지나 비녀같은 패물을 국채보상 의연금으로 내어놓았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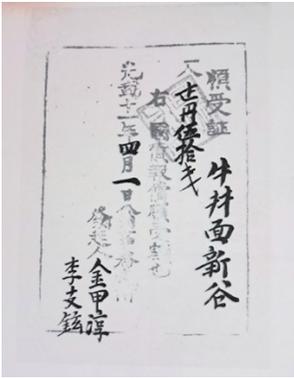


대구민의소에서 발행한 국채담보금(국채보상의연금) 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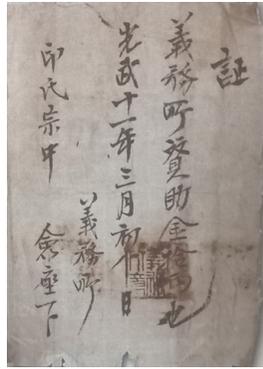


대한매일신보사에서 발행한 국채보상의연금 영수증

2) 나눔과 책임 연구소(2016), 『세계가 주목하는 국채보상운동』, 도서출판 그루.



공주사무지소(우정면 신곡)
국채보상금 영수증



인씨종중 국채보상금 영수증

Ⅲ. 독립군과 군자금

1. 독립운동 자금조달을 위해 백산상회를 설립한 안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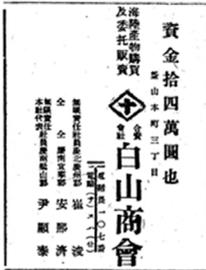
안희제(安熙濟, 1885. 8. 4~1943. 8. 3)처럼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 운동가는 흔치 않다. 안희제는 근대교육의 보급을 위한 교육구국 운동으로 의신·창남·구명학교 설립, 교남교육회에서의 계몽운동, 비밀결사 대동청년단 결성,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위한 백산상회 설립, 독립운동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 기미육영회 조직, 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부산예월회 조직, 경제권 수호를 위한 협동조합운동 전개, 중외 일보를 통한 항일언론투쟁,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발해농장 경영, 만년에는 대중교에 귀의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안희제의 활동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자금 조달이다. 배가 고파서 우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안희제는 독립운동자금의 젖줄이 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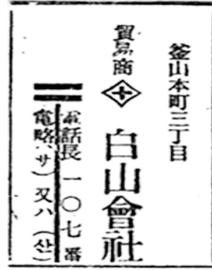
1910년 일제의 한국강점으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렵게 되자 안희제는 다음해인 1911년부터 3년간 러시아와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일본 견학이라는 소문을 내고 러시아 원동지역으로 갔다. 두만강을 건너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페테르스부르크를 거쳐 북간도지역을 둘러보았다. 이때 안희제는 6개월간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면서 러시아로 망명해 있던 안창호(安昌浩)·신채호(申采浩)·이갑(李甲) 등 독립운동지도자들을 만나 앞으로의 독립운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안희제가 1911년 말경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스부르크에 갔었다는 사실은 1911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와병중이던 이갑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

안희제는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상하이에 들러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났다. 이때 김구 주석은 안희제에게 국내정세에 대해 물었다. 안희제는 “국내의 기강이 해이하고 변절자가 많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애국 사상이 있다는 사람도 『정감록(鄭鑑錄)』의 ‘양백지간(兩白之間)에 가활만인(可活萬人)’만 안일하게 찾고 앉았다”고 대답하며 “세인구구양백지간(世人口口兩白之間; 세상 사람들이 말끝마다 양백지간 운운하다)”이라고 하자, 김구는 안희제의 손을 잡으며 “차시양백오등양인(此是兩白五等兩人; 양백지간은 바로 우리 둘이다)”라고 하면서 “백범(白凡)의 ‘백(白)’과 백산(白山)의 ‘백(白)’을 합하면 ‘양백(兩白)’이니 우리 두 사람이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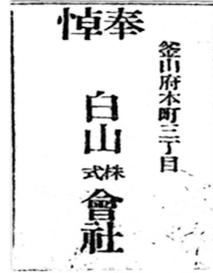
3) 이갑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1. 11. 28, 독립기념관 소장).



합자회사 백산상회 광고



백산무역주식회사 광고
(『매일신보』 1919. 2. 17)
백산상회를 확대 개편하여
1919년 1월 14일
백산무역주식회사
설립인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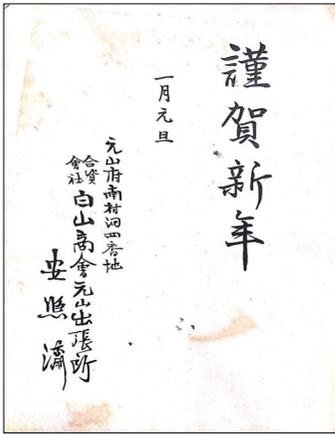


백산무역주식회사 광무황제
국장을 애도한 봉도
광고(『매일신보』 1919.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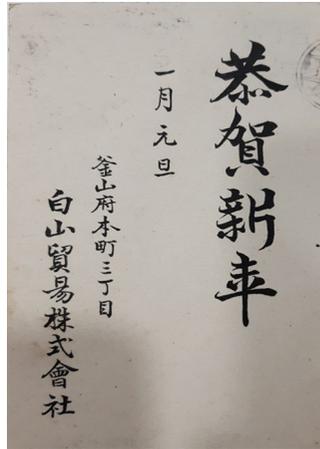
1914년 귀국한 안희제는 고향의 전답 2,000마지를 팔아 자본금을 마련하여 1916년 경 부산에서 백산상회를 설립하였다.

백산상회는 설립 초기에는 주로 곡물·면포·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개인상회였으나, 1917년 경기 호황에 힘입어 합자회사 백산상회로 전환하였다. 이후 1919년 5월 백산무역주식회사로 발전하였다. 독립운동자금 조달은 장부상 거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 발각되지 않았다. 백산무역주식회사는 국내에 서울·대구·원산·인천 등 18개소, 중국 안동·봉천·길림 등 3개소에 국외 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이들 지점 및 연락사무소는 영업 활동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한 연락과 자금 전달을 담당했다. 백산무역주식회사는 1928년 1월 29일 해산되고 말았다.⁴⁾

4) 이동연(2010), 『독립운동 자금의 젖줄 안희제』, 역사공간, 49~72쪽; 권대웅(2013), 『백산무역 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 백산안희제선생순국70주년추모위원회, 『백산 안희제의 생애와 민족운동』, 도서출판 선인, 163~193쪽.



안희제 연하장(원산부 남촌동 4번지 합자회사백산상회원산출장소)



백산무역주식회사 연하장



안희제 사용인장



백산무역주식회사 대차대조표

2. 6천석(石) 재산을 쾌척한 이회영일가

이회영(李會榮; 1867. 3. 17~1932. 11. 17) 일가가 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인 집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선견지명을 갖고 헌신적으로 대처해 나갔다는

점이다. 더구나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를 바탕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점 또한 모범사례이다. 이회영 7형제 중 여섯 형제(형 건영·석영·철영, 동생 시영·호영) 50여 가족이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자 모두 만주로 가 항일투쟁의 기틀을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우리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회영일가(6형제)

이회영은 서울 저동(苧洞)에서 이유승(李裕承)의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부친 이유승은 이조판서와 의정부 참찬을 지냈으며 어머니는 이조판서를 지낸 정순조(鄭順朝)의 딸이다. 이회영은 위로 3명의 형 건영(健榮)·석영(石榮)·철영(哲榮)이 있었고, 아래로는 동생 시영(始榮)과 여동생 2명 그리고 이복동생 소영(紹榮)·호영(護榮)이 있었다. 여동생 2명과 소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첫째 여동생은 신익희의 여섯째 형으로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신재희의 부인이다.

1909년 봄 서울의 양기탁 집에서 신민회 간부인 이회영과 안태국(安泰國)·이승훈(李昇薰)·김구(金九)·이동녕·김기홍(金基弘)·조성환(曹成煥) 등이 함께 모여 독립군 양성을 위한 방책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여름 이회영과 이동녕·주진수(朱鎭洙) 등이 독립운동기지 건설의 적지를 찾기 위하여 만주에 파견되었으며,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柳河縣三源堡鄒家街)지방을 선정하여 개척하기로 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이회영은 6형제 가족회의의 결의에 따라 전 가족 40여 명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 자금 40만(1969년 현재 화폐 가치 600억 원)을 가지고 12월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6형제 중 둘째형 이석영은 당시 재상이자 부호였던 큰아버지 이유원(李裕元)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이석영은 양부로부터 물려받은 ‘6천석(石)’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자금으로 내어 놓았다.

이회영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중계몽(1898년), 을사오적(乙巳五賊)에 대한 규탄(1905년)·안창호(安昌浩)·전덕기(全德基)·양기탁(梁起鐸)·이동녕(李東寧)·신채호(申采浩)·노백린(盧伯麟) 등과 함께 설립한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 활동(1906년), 중국 동삼성에 이상설 이동녕 등을 특파해 교포자녀 교육을 하게 한 서전서숙(瑞甸書塾)개설(1907년), 신민회 조직(1907년), 서울상동(尙洞)교회의 상동청년학원개설(1908년), 농업생산과 교육을 위한 교민자치단체 경학사(耕學社)조직(1911년), 청산리전투의 주역들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 설립(1912년), 재(在)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조직(1924년), 항일구국연맹 조직(1931년)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이회영은 1932년 만주에 연락근거지를 마련함과 아울러 주만일군 사령관 암살 등을 목적으로 대련(大連)행 기선을 타고 만주로 가던 중, 일경에 탐지되어 체포되었다. 일본경찰의 이회영 체포 과정에서 4등선실의 수많은 중국인 중 정확히 이회영을 지목한 것을 의심스럽게

여기 남화한인청년연맹 단원들은 마지막으로 이회영이 상하이로 떠날 때 만난 인물인 이규서(이회영 조카, 이회영의 둘째 형 이석영의 둘째 아들)와 연충렬(임정요인 연병호의 둘째 아들)을 의심하였고,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추궁하여 일본 경찰에 밀정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처단하였다. 그는 노령인데다가 일경의 무자비한 고문으로 1932년 11월 17일 여순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이석영·이회영·이호영 3형제가 만주와 중국에서 순국했으며 해방후 이시영이 임정요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환국했을 때 살아남은 가족은 2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력 없는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독립운동자금이야말로 독립운동의 생명수였다. 대일항쟁기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위해 전 재산을 기꺼이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분들의 대담하고 고귀한 희생은 조국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⁵⁾

3. 전답과 99칸 임청각을 처분한 임정 국무령 이상룡

이상룡(李相龍, 1858. 11. 24(음)~1932. 5. 12)은 1858년 경북 안동에서 이승목(李承穆)과 부인 권씨 사이의 3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영남 학계의 거유인 서산 김흥락(金興洛)에게 사사하며 명가의 후예이자 정통 유학자로서 손색없는 학문적 수업을 닦았다. 당시 제국주의 열강은 조선에 서서히 침략의 촉수를 뻗쳐오고 있었으나 그런 속에서도

5) 김명섭(2018), 『자유를 위해 투쟁한 아나키스트 이회영』, 역사공간 이동인(2021), 『이회영 일가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나눔과 책임 시민아카데미』, 59-71쪽.

임청각의 서재에 묻혀 벗 삼아 생활하던 선생의 청년기는 비교적 평온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1896년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공포에 항거하여 외숙인 권세연(權世淵)이 의병을 일으키자 이에 참진, 행동하는 척사유림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선생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눈뜸과 참여는 1905년 을사늑약을 맞아 1만 5천금을 투자, 가야산에 군사기지를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계속 되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선생은 무기의 열세, 근대적 군사훈련의 부족 등으로 인한 의병의 한계를 자각하고 구국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상룡은 인근지역의 유인식, 김동삼 등 혁신 유림적 인사들이 협동학교를 세워 근대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이자 이에 합류하여 칸트, 홉스, 루소 등 서구근대사상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1907년경 계몽주의자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당시 선생은 50세였다. 안동의 전통사회에서 명가의 후손으로 이미 뚜렷한 입지와 명망을 얻고 있던 선생이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새롭게 자신의 의식세계를 전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터였다. 이는 선생의 사상이 구국의 차원에서 하나로 묶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전통유교적 사고의 바탕에서 새롭게 밀려드는 서구의 신사조를 흡수함으로써 동양이나 서양이나의 극단적 양자택일을 떠나 이 둘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시도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룡이 이렇듯 혁신된 유림의 행보를 견제 됴에 따라, 그리고 안동지방 특유의 친족적 연대감으로 인해 선생은 이 지역 집단개혁의 선두에 자리잡게 된다. 1908년경에는 계몽단체인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여 애국강연, 회보발간 등을 통한 자강운동에 뛰어들었다. 또한 대한협회 중앙본부가 점차 친일적 성향으로 기울자 본부에 통렬한

비판을 가해 구국계몽운동이 갖는 본래적 모습을 지키고자 했다. 계몽운동은 어디까지나 구국의 방편으로 활용될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한편 당시 국내 최대의 비밀결사 신민회에서는 조국의 망국사태를 맞아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해 해외에 독립군 기지개척을 추진하고 있었다. 주진수와 황만영을 통해 이 계획을 전해들은 선생은 이에 찬동, 1911년 1월 서둘러 가산을 정리하고 일가를 거느린 채 중국 동삼성으로 망명을 결행하였다. 이미 50이 넘은 고령에 자신의 삶이 어우러진 고향, 안동을 떠나 새로운 생활을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선생의 결단은 결코 범용한 것이 아니었다.

4. 의열단 창단자금을 조달한 이종암의사

이종암(李鍾岩, 1896.1.12~1930.5.29)은 경상북도 대구시 달성군 공산면 백안동에서 부친 이석능(李錫能)과 남원양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河濱이고⁶⁾ 본명은 鍾淳, 兒名이 종암(仲岩)이다.⁸⁾ 어려서는 조부에게 『천자문』·『동몽선습』·『사략』 등 한학을 수학하였고 차분하고 끈기 있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1905년 조부를 따라 부재서당에 입학하였는데 당시 대구에서 가장 진보적인 서당이어서 한학과 함께 산술·체조·창가도 가르쳤다고 한다. 부재서당에서 3년

6) 하빈이씨 문중의 독립운동가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와 1922년 7월 의열단의 제2차 국내대거사(일명 '황옥사건')에 참가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른 이현준 등이 있다.

7) 원래 이종암 위로 '鍾胤'이라는 형과 누님이 3명 있었는데 모두 무死하였다. 그후 종암이 태어나자 '바위같이 튼튼하게 오래 살라'는 뜻에서 아명을 '바위암(岩)' 자를 사용하여 '鍾岩'으로 하였다고 한다.

8) 이종암은 본명의 梁建浩, 梁州平, 李仲浩, 權宅建, 李鍾淳, 梁權吾 등 7가지로 이름을 바꾸어 가며 활동하였다(『동아일보』 1926년 11월 11일『變名七種』). 양씨 성은 외가 성을 따서 변성명하였다.

동안 공부하던 이종암은 1908년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대구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1912년 대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이종암은 대구농림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학년을 마치고 중퇴하였다. 이종암은 다음해인 1913년 부모 몰래 매형에게 5원을 얻어 부산으로 가서 부산상업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였으나 학비조달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이종암이 독학을 하던 중 1914년 봄 대구은행 견습생으로 입사하여 1년 만에 출납계 주임이 되었다. 이종암이 입사한 대구은행 은행장 정재학은 그의 고모부이다. 대구은행은 1913년 11월 설립되었는데 정재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일대의 지주계층이 중심이 되어 경북에서 최초로 설립한 민족계 지방은행이다. 이종암은 1914년 대구은행에 입사한지 1년 만에 출납계 주임이 된 후 1915년 서희안과 결혼하였다.

1917년 12월 이종암은 대구은행 돈 1만 5백여 원⁹⁾을 소지하고 종적을 감추었다.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고 마감시간 5분쯤 지나 어느 상점에서 1만 5백여 원을 입금하려고 왔다. 이종암은 이 돈을 보자기에 싼 채 금고 뒤쪽 구석에 감추고 입금전표에 도장을 찍었다. 이종암이 출납계 주임이라 쉽게 빼돌릴 수 있었다.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대구은행에서는 월요일 아침에야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종암은 대구은행 동료인 신상태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신상태는 이종암을 자신의 본가 약목 복성동에 숨겨주었다. 2달 동안 발각되지

9) 이종암이 대구은행에서 빼돌린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기려수필』에는 1만 9천여 원이라고 되어 있고, 경북의열단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1926년 11월 11일자 보도기사에는 1만 9백여 원, 12월 20일자 보도기사에는 1만 4백 원으로 되어 있다. 이종암의 동생 이종범이 쓴 『義烈團 副將 李鍾岩傳』에서 분명히 1만 5백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판기록에는 이종암이 3천 원은 김원봉 등의 생활비와 상해등지에서 여비와 폭탄구입비로 사용하였고, 7천 원은 구영필에게 맡겨 봉천에서 삼광상회를 경영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종암이 법정에서 언급한 금액은 도합 1만 원이다.

않고 숨어 지내던 이종암은 1918년 2월 중순 중국으로 망명하여 ‘양건호’라는 가명으로 활동하였다.

이종암은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1917년 만주를 왕래하며 활동하던 밀양의 김대지·구영필 등과 함께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애당초 이종암의 계획은 대구은행 돈 1만 5백 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코자 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구영필과 함께 상해를 거쳐 만주로 갔다. 이종암은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봉천에서 구영필과 함께 대구은행에서 가져온 돈 중으로 7천 원을 자본금으로 三光商會를 설립하고 무역업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이종암은 ‘양건호’란 가명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이종암은 삼광상회를 구영필에게 맡기고 길림으로 갔다. 당시 이종암은 吉林省 寧安縣 東京城의 墾民小學校에 주소를 두고 1918년 4월 奉天省 通化縣에 있는 新興中學校에 입학하였다. 이종암은 신흥중학교에서 수학하며 서상락·한봉인·신철휴 등과 함께 기숙사 같은 방에서 지냈다. 그리하여 통화현 고산자와 합니하 두곳에 분교를 설치하고 1919년 5월 3일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하였다. 이종암은 서상락·신철휴·한봉인·강세우 등과 함께 고산자 제2분교로 옮겼다. 이종암·신철휴·한봉인 등은 제2기 졸업생이고, 한봉근·최운동 등은 제4기 졸업생이다. 1919년 국내에서의 3·1운동 소식이 전해오자 이종암은 서상락·이종우·강세우 등과 협의한 후 보다 실질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떠나 길림으로 갔다.

이종암은 의열단 창단에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의열단 창단과 활동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고, 김원봉과 함께 상해로 가서 3개월간 폭탄제조법과 조작법을 배우는 등 의열단 창단을 위해

매진하였다. 이종암은 의열단 의거를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1920년 제1차 ‘국내기관 총공격거사’ 당시에는 자금조달 및 연락책 임무를 맡았고, 최수봉의거(밀양경찰서 투탄)를 지원하였으며, 1922년 상해 황포탄의거(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 저격)당시에는 제3선 저격수였고, 1922년 의열단 조직개편 이후에는 5인 기밀부의 일원이었다. 1923년 대규모 광역거사(제3차 폭동계획) 추진시에는 특파단원으로 선발되었다.

이종암은 1925년 신병에도 불구하고 동경거사 준비를 위한 군자금 모금을 위해 국내로 잠입하였다. 이종암은 의열단 단원 11명과 함께 경상남북도 일원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제 경북경찰부에 체포되었다. 바로 이종암이 주도한 경북의열단 사건이다.

경북의열단사건은 일제가 중대사건으로 규정하고 의열단의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 1년간 비밀리에 조사하고 신문보도도 통제하였다. 경북의열단사건의 중심인물인 이종암은 재판과정에서 태연하고 당당하게 대구은행에서 가져간 자금과 의열단에서의 활동 등 전부 시인하였다. 이종암은 징역 13년을 언도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중 1930년 5월 19일 위장병·인후병·폐병이 위중하여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지 열흘만인 1930년 5월 29일 35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이종암은 의열단 창단이후 체포될 때까지 의거 결행을 위해 6차례에 걸쳐 국내로 잠입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한 행동파였다. 이종암의 조국 독립을 위한 의지는 의열단 의거로 점철되었고 의열단과 운명을 같이한 진정한 의사였다.¹⁰⁾

10) 이동언(2013), 『이종암의 생애와 의열투쟁』, 이동언, 『내가 몰랐던 독립운동가 12인』, 도서출판 선인, 355~385쪽.

IV. 독립운동자금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공채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된 후 임시정부의 존립을 위해서는 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정이었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정부에서는 수립 직후 상하이에 도착하는 인사들이 가진 자금과 국내에서 보내온 자금으로 간신히 버텨오다가 안창호가 부임하면서 미국에서 가져온 자금을 투입하여 임시정부 운영에 힘을 쏟았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안정적인 방안을 찾아갔다. 하나는 대내적으로 인구세와 애국금을 모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외국에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었다. 1919년 9월 재정제도와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주로 인구세를 조세수입으로 애국금을 조세 이외의 주수입원으로 삼았다. 이중에서 애국금은 1920년 4월부터 독립공채가 대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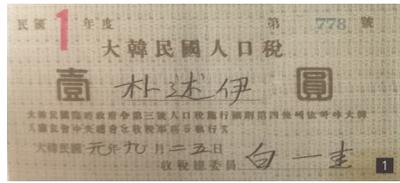
독립공채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에서 1920년 4월 17일부터 판매한다고 공포하였다. 최초의 독립공채는 1919년 8월에 이미 발행하였고, 1919년 9월 1일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 대통령 이승만 명의로 공채를 공식 발행하여 판매하였다. 상하이에서는 원화표시 채권을 미주에서는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원화채권 액면가는 100원, 500원, 1000원 3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 이시영 직인이 찍혀있고 발행 금리는 연 5%였다.

독립공채 원금은 우리나라가 독립한 뒤 5~30년 이내 수시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달러채권은 액면가가 10\$, 25\$, 50\$, 100\$, 1000\$ 등 5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명의로 발행하였고 발행 금리는 연 6%였다. 독립공채는 국내 비밀 행정조직인 교통국과

연통제를 통해 모집되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발행한 독립의연금 증서(1919)



대한민국민회중앙총회가 임시정부를 대항하여 발행한 대한민국민구세 영수증 (1919. 9. 25)



구미위원회에서 발행한 독립공채(100달러)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

2. 6번이나 국경을 넘은 정정화

정정화(鄭靖和, 1900. 8. 3~1991. 11. 2)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수원유수를 지낸 정주영(鄭周永)과 이인화 사이의 2남 4녀 가운데 셋째 딸이었다. 부친은 충남 예산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은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의 귀여움뿐 아니라 두 오라버니와 언니들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다.

1920년 상해로 망명하여 1946년 귀국하기까지 선생은 망명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임정 요인들의 뒷바라지에 바쳤다. 백범 김구는 물론 석우 이동녕·성재 이시영 등 임정 요인들 가운데 선생이 지어준 밥을 먹지 않은 분이 없었고, 임정의 가재도구 가운데 선생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임정 요인들의 고달픈 망명생활은 선생이 있음으로써 위안이 되었고, 나아가 27년간이라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임시정부의 역사도 선생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1919년 3·1운동의 발발과 그 와중에서 대동단 총재로 추대된 시아버지 김가진과 남편 김의한이 상해로 망명한 사건은 선생의 생애에서 하나의 큰 전기였다. 이를 계기로 선생 또한 상해 망명과 독립운동 투신을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선생은 1920년 1월 초순 서울역에서 의주행 열차를 타고 상해로 망명길에 올랐다. 서울에서 의주, 봉천, 천진, 남경, 상해까지 연이어 열차를 갈아타면서 꼬박 열흘 이상을 달려 상해에 닿은 것은 1월 중순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다. 그러나 상해에 도착하여 재회의 기쁨도 맛보기 전에 선생은 다시 국내로 밀파되었다. 당시 임정 법무총장으로 있던 예관 신규식(申圭植)과 시아버님 김가진의 지시에 따라 정정화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20년 3월 초순 상해를 출발하여 국내로 향했다. 국내 잠입 경로는 1919년 7월 시행되어 국내외에 가동되고 있던 임시정부의 비밀 지방 행정 및 연락 조직인 연통제를 따랐다.

상해에서 만주 안동현까지는 이룡양행(怡隆洋行)의 배편을 이용하였다. 당시 안동에는 우강 최석순이 임정의 연락책으로 상주하고 있었다. 그는 일경으로 위장해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들의 내왕을 도왔는데, 정정화는 그의 누이동생을 가장해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선생은 서울역 건너편

세브란스 병원 관사에 있는 신필호를 찾아갔다.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젊은 산부인과 의사였던 신필호는 신규식의 장조카였기 때문에 그 집을 거점으로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나선 것이다.

정정화는 20일 가랑 서울에 있으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 뒤, 그 돈을 전대 깊숙이 간직한 채 4월 초 상해로 귀환하였다. 첫 번째 독립운동 자금 조달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이어 1921년 늦은 봄 두 번째로 국내에 밀파됐는데, 그 출발 동기 자체가 임정의 독립운동 자금 모금에 있었다. 선생은 국내에 들어와 곧바로 예산의 친정 집으로 내려가 친정아버지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런 다음 개성을 거쳐 우사 김규식의 이질(姨姪)인 서재현을 대동하고 상해로 귀환함으로써 두 번째 임무도 완수하였던 것이다.

이듬해 6월 중순 정정화는 세 번째로 국내로 밀파되었다. 이번 국내 잠입의 목적도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해에서 배편으로 산둥반도의 청도를 거쳐 안동현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동행인 이욱(李昱)이 워낙 자신 있다고 장담하는 바람에 열차가 아니라 인력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기로 했다. 그러다가 정정화 일행은 압록강 철교 위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었고, 결국 신의주 경찰서로 끌려 가 이틀 동안 심문을 받은 끝에 신분이 탄로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 나왔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 김가진의 부음을 받았다. 일흔이 넘는 나이에 조국 광복에 투신하고자 상해로 망명하였던 김가진이 1922년 7월 4일 불귀의 몸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해 7월 장례식 참석을 명분으로 시동생 김용환을 대동하고 다시 상해로 갔던 것이다.¹¹⁾

11) 신명식(201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정정화』, 역사공간.

3.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차장 윤현진

1919년 3·1운동 당시 경남은행 마산지점장을 맡고 있었던 윤현진은 1919년 3월 20일 동생 덕경(德卿)의 혼례를 치르고 이튿날 3월 21일 동지들과 함께 상하이로 가기 위해 고국을 떠났다. 상하이에 도착한 윤현진은 상해 임시정부 탄생에 중요 역할을 하게 되는 동제사(同濟社)와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결성했던 독립임시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결과 선생은 1919년 4월 13일 발표된 상해 임시정부 7개 위원회 중에서 신익희 이외 8명과 함께 내무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윤현진은 9월 18일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각 도를 대표하는 도별위원 중 경상도위원으로 김창숙(金昌淑), 현정건(玄鼎健), 이규홍(李圭洪) 등과 같이 활동하였으며, 11월 23일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적십자회 회원을 확충하기 위해 모집에 앞장섰을 때 31대(隊) 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어서 선생은 1920년 1월 김구, 손정도(孫眞道), 김철(金澈) 등과 함께 의용단(義勇團)을 조직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후 상하이에는 조선인들 중심의 의열단, 구국모험단, 화동 유학생회 등과 같은 각종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들은 1921년 30여 개에 이르렀는데 윤현진이 참여했던 의용단은 그 중 하나였다.

상하이에서 결성된 의용단은 사실상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의용단의 국내 활동지로서 평양, 황해도, 부산 등이 일제의 기록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의용단을 조직했던 윤현진은 1920년 2월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獨立新聞)』을 발간하기 위해 독립신문사(獨立

新聞社)의 주식을 모집할 때 발기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탄생에 초기부터 깊이 관여했던 윤현진은 1919년 9월 11일 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공포하고 총장과 차장을 임명할 때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과 함께 재무차장으로 선임되어 1921년 2월 22일까지 재무차장으로서 임정의 살림살이를 주관하였다. 윤현진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호파, 관서파 등으로 분열되어 여러 가지 업무상의 마찰을 낳게 된다. 여기에 이승만의 대통령 호칭 사용문제, 1919년 11월 여운형의 도일(渡日)문제, 이승만 퇴진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불거지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불협화음은 계속되었다.

이에 윤현진은 차장급 인사들을 규합하여 1920년 5월 14일 차장과 비서장이 연맹하여 대통령불신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사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윤현진과 차장급 인사들이 제시한 이승만 대통령직 퇴진에 대해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노동국 총판을 맡고 있었던 도산 안창호는 회의적이었다. 그 이유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퇴진시킬 경우 친미외교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설령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퇴진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승만 본인이 상해 임시정부의 결정사항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도산 안창호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차장급 인사들을 대표했던 윤현진은 “혁명 사업은 우선 내부가 서로 신임하고 응결하여야 되는바 현금 상황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니 이박사가 퇴거하거나 우리가 퇴거하거나 양단간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맞서면서 국무원 연석회의에서 이승만 중심의 구미위원부를 해산할 것을 포함한 4개항의 요구조건을 재차 제시하였다. 선생을 선두로 차장급 인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맞닥뜨린 안창호는 만약 차장들이 주장하는 대로 된다면

상해 임시정부와 이승만의 구미위원부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차장내각책임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윤현진과 내무차장 이규홍(李圭洪)은 안창호가 제시한 ‘차장내각책임제’를 채택하게 된다면 마치 차장들이 상해 임시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을 도모한 것으로 내비칠 수 있다고 보고 안창호가 제시한 ‘차장내각책임제’를 거절하였다. 이에 안창호 역시 선생과 차장들이 제시한 이승만 퇴진과 내각개조를 끝내 반대하였다.

결국 윤현진을 비롯한 차장들은 1920년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불신임안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안창호의 설득과 주변의 만류로 사직서는 취소되고 5개월 동안 끌어온 상해 임시정부 개혁 논의는 서북파와 기호파의 지방별 대립, 국무원 사이의 불신과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선생과 차장급 인사들이 상해 임시정부의 혁신을 위한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그러나 윤현진이 요구했던 상해 임시정부의 혁신 노력은 1921년 2월 박은식, 원세훈, 왕삼덕 등 14인이 ‘우리동포에게 고함’을 통해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국민대표회의는 1919년 4월 결성된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개조파와 이승만 배척, 상해 임시정부 해체, 새로운 정부수립 등을 요구한 창조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다. 양측의 대립은 점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1922년 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태평양회의와 국민대표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준비 자금 마련의 어려움 등이 겹쳐 마침내 1923년 1월 3일 국민대표회의가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민대표대회는 1923년 1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6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개조파와

창조파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그 결과 이후의 국외 독립운동은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이 각계 약진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윤현진은 1921년 이후 국민대표대회 개최를 위해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할 때 개조파의 수장인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국민대표대회 상해기성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에 선생은 1921년 9월 15일 국민대표대회 상해기성회가 주최했던 상하이와 베이징의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여운형, 김규식과 함께 상해기성회 대표로 참석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개조에 앞장섰다.

그러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윤현진은 그동안의 과로가 겹쳐 1921년 9월 16일 하오 2시 상하이 보창로(寶昌路) 보강리(寶康里) 54에서 만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윤현진이 입원했을 때 도산 안창호는 자신의 소지품까지 저당 잡혀가면서 입원비를 대었고 장례비를 전담하며 몹시 애통해 했다. 윤현진이 임종하자 상해 임시정부는 국장(國葬)으로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만장이 휘날렸고 윤현진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16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그의 죽음을 애석해 했다. 윤현진의 유해는 상하이 정안사로(靜安寺路) 외국인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는데 동생의 죽음에 비통해 했던 큰형 윤현태는 뒤늦게 상하이에 도착하여 순한글 자필로 비석을 세움으로서 슬픔을 달랬다.¹²⁾

12) 이병길(2022), 『윤현진 평전-항일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양산의 별』, 양산시립도서관.

V. 승려들의 독립운동자금 지원

승려들은 독립운동 자금지원을 통해 불교계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연결하여 불교의 민족의식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유입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승려들은 불교계 자금을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자금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범어사의 김상호·김상현·김석두가 범어사 원로인 이담해·오성월·김경산·오리산 등이 모금해 준 독립운동 자금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담해·오성월·김경산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그 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인물로 항일승려 백초월을 들 수 있다.

“백초월(白初月)은 승려로 있는 몸인데 불구하고, 항상 불온사상을 품고 국권회복을 몽상하여 은근히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금년 봄 소요(騷擾) 발발한 이래 해외동포는 조국의 부흥을 위하여 혹은 러시아, 또는 중국 영토에서 독립군을 일으키고, 또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등 오직 독립운동에 활약하고 있으며, 선내(鮮內)에 있어서도 예수교 및 천도교들은 매우 이에 원조를 하고 있으나, 다만 불교도(佛敎徒)만은 이에 무관심하고 있음을 크게 유감지사로 생각하여, 금년 4월 경성에 들어와 시내 각처에 잠재하면서 우선 불온 문서를 간행하여 인심을 교란시킬 계획으로 한국민단본부(韓國民團本部)라는 단체를 경성 중앙학림(中央學林) 내에 설치하여 스스로 민단부장(民團部長)이 되어 자금과 부원 모집에 분주하였으며...”¹³⁾(김정명, 『독립운동 자금 모집자 검거의 건』, 1919년 12월 5일자, 『조선독립운동』 제1권 분책, 219~220쪽. 참조)

백초월은 3·1운동 직후 서울로 와서 중앙학림에 독립운동단체인 민단본부를 결성하였다. 그는 중앙학림 학인이었던 정병헌·신상완·

13) 김정명, 『독립운동 자금 모집자 검거의 건』, 1919년 12월 5일자, 『조선독립운동』 제1권 분책, 219~220쪽.

백성욱을 천은사·화엄사·쌍계사 등의 승려들에게 파견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게 하였다. 백초월은 모금된 독립운동 자금을 불교계 루트를 통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¹⁴⁾

1919년 5월 해인사 승려인 김봉율·박달준·강재호·송복만·손덕주·박덕윤·이창욱·김장윤, 그리고 대흥사 승려인 박영희는 3·1운동 당시 만세시위를 주도한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위해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은 남만주 서로군정서 영수증을 소지하고 김룡사·고운사·범어사 등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였다. 그 외 김상현은 상해를 배경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19년 8월 독립운동 자금 모금 임무를 띠고 국내로 잠입하여 철원애국단을 조직하고 함경남도 지역에서 모금한 독립운동 자금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안창호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함흥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이범대는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동지 포섭을 위해 해동불교청년회를 결성하여 만주의 대한독립단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통도사 주지 김구하는 1919~1920년 사이 상해 임시정부의 안창호 국무총리(5,000원), 혁신공보 백초원(2,000원), 이종욱에게 군자금(3,000원), 등 1만 3천 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였다.¹⁵⁾

14) 백초월에 대해서는 김광식(2007),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김광식(2014), 『백초월』, 민족사; 김광식(2013),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불교와 국가』, 국학자료원; 이동언(2015), 『3·1운동 직후 백초월의 독립운동과 혁신공보』, 『만해학보』, 제14·15합호 참조.

15) 한동민(2011),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제15집, 57~58쪽; 김광식(2022), 『구하 독립운동의 자료, 개요와 성격』, 『대각사상』, 제37집, 9~42쪽.

Ⅵ. 맺음말

대일항쟁기 한민족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회복을 위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 자금 조달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독립운동 자금이야말로 독립운동의 생명수였다. 대일항쟁기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또한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 전 재산을 기꺼이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대담하고 고귀한 희생은 조국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 독립운동 자금이나 군자금을 모집하는 일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문서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실정이다. 독립운동공훈록을 보면 군자금 모집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다. 일제측 보고서외에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나 증언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운동 자금 조달의 주역들은 독립운동의 CEO였다. 남아있는 독립운동 자금이나 군자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광식(2022), 『구하 독립운동의 자료, 개요와 성격』, 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 37.
- _____ (2007),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 김명섭(2008), 『자유를 위해 투쟁한 아나키스트 이회영』, 역사공간.
- 나눔과 책임 연구소(2016), 『세계가 주목하는 국채보상운동』, 도서출판 그루.
- 신명식(201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정정화』, 역사공간.
- 이동언(2002), 『독립군을 키운 숨은 주역』, 광복회·사단법인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월간 순국』, 373.
- _____ (2021), 『독립지사들의 동력이 되어준 독립운동자금』, 독립기념관, 『월간 독립기념관』, 396.
- _____ (2013), 『이종암의 생애와 의열투쟁』, 『내가 몰랐던 독립운동가 12인』, 도서출판 선인.
- _____ (2021), 『이회영일가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나눔과 책임 시민아카데미』.
- _____ (2010), 『독립운동 자금의 젓줄 안희제』, 역사공간.
- 이병길(2022), 『윤현진 평전-항일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양산의 별』, 양산시립도서관.
- 한동민(2011),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 15.
- 백산안희제선생순국70주년추모위원회(2013), 『백산 안희제의 생애와 민족운동』, 도서출판 선인.

Independence CEO

Dong-eon Lee*

Abstract

During the period of resistance against Japan, the Korean people did not give in to persecution and fought for independence in order to restore national rights from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process, procurement of the funds was very importan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t was extremely risky to do so as Japanese surveillance was prevalent. Also, risking your entire savings to secure procurement was not an easy feat. The bold and noble sacrifice of these people was the true noblesse oblige that accomplished the historic task of gaining national independence.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only a few documents or materials remaining to prove these acts of procuring funds, as these were done in secret to avoid Japanese surveillance.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there are many independence activists who went to jail for participating in these acts. These heroes were the CEO's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I believe it is a meaningful work to collect and organize the remaining resources regarding military or independence funds.

Keyword: Independence Campaign Funds, Military Funds, Pension Funds for Government Bond Compensation, Ahn Hee-je, Lee Hoe-young, Lee Sang-ryong, Independence Public Bond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Jeong Jeong-hwa, Yoon Hyun-jin

* Research Director, Sunin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E-mail: delee5641@hanmail.net)